



남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도량마을 반찬가게 나눔

남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9월 21일부터 10월 30일 까지 2023 도량마을 지속가능 마을관리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금동 14동 '도량마을 반찬가게' 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반찬가게는 금동 14동 도량마을 주민과 도시재생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이 모여 구성된 정관장 협동조합이 직접 반찬을 제작 마을 및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나눔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4회에 걸쳐 진행한다.

매회 반찬은 총 4종 70세트로, 이 중 30세트는 금동행정복지센터에 기부되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전달되었으며, 40세트는 마을주민 중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온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금동 14동 지역은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7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주거지 정비, 집수리 등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량마을 반찬가게 사업으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함께 손맛 반찬가게 실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제6회 귀성객맞이 추석 노래자랑 성료

진안군은 4일 한가위 명절을 맞아 진안고원시장 주차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귀성객 노래자랑'이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을 환영하기 위해 진안군과 진안군 농상공인연합회 주최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과 초청 가수 공연 및 귀성객 노래자랑 등이 펼쳐졌고, 행사 중간에는 대규모 불꽃놀이 및 다양한 경품추첨을 진행하며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은구 진안군 농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신 귀성객과 일상에 지치신 군민 모두가 보람달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오늘과 같은 애정과 관심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명희문학관, 7일 단어와 문장, 책과 마음 나눔

최명희문학관이 오는 7일 한글날을 맞아 '단어와 문장, 책과 마음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행사는 소설 '혼불'에 나오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며 아름다운 우리말과 친해지는 '국어사전을 펼쳐라!', 작가와 일대일 상담으로 00한 사람이 읽으면 좋은 책을 소개받는 '그대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혼불'에 나오는 문장을 근사한 손글씨 작품으로 담아 가는 '혼불 문장 나눔', MBTI 성향으로 본 나에게 어울리는 책 등 다채롭게 구성했다.

특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전북 문화인들의 신간 도서와 손때 묻은 한책, 책갈피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63-284-0670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반암면 체육회, 화재 피해 가구 위해 100만원 기탁

장수군 반암면 체육회(회장 이민호)가 반암면사무소(면장차주영)를 방문해 화재로 인해 시름에 빠져 있는 피해 주민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민호 체육회장은 "피해 주민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소 성실 근면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분에게 더욱 안타까웠다"며, "지역사회단체의 한 일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반암면 주민자치위원회 소순배 위원장도 불우한 이웃에 써 달라며 개인 성금 50만원을 기탁하는 등 반암면에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차주영 반암면장은 "십시일반 함께하는 마음과 참여가 늘 어날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해지고 훈훈한 정이 넘칠 것"이라며, 모든 분께 감사함을 전했다.

한편 이번 성금은 반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작아도 강하고 아름다운 '손을 잡는 도시들'

정읍미래발전연구원,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 초청 문화토크쇼 '사발톡톡' 열려

사단법인 정읍미래발전연구원(이사장 안수용) 주최로 도시전문가이자 도시계획가인 서울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를 초청, 문화토크쇼 사발톡톡이 지난 9월 22일 정읍문화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안수용 이사장

이날 문화토크쇼에서 미래발전연구원 안수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예술, 문화기획, 문화행정, 문화관광자원, 문화유산 등 문화 활동을 통해서도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 오면서 정석 교수의 '소다연강미'와 '일백달수, 지역민국'이란 주장은 오랜 시간 목격자가 보이지 않는 긴 사막을 걷다가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시원한 물줄기를 선사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고령사회를 맞아 많은 지방소도시들이 지역 소멸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석 교수는 '소다연강미(小多連強美)'- 작아도 강하고 아름다운 손을잡는 도시들'이란 주제로 많은 지역의 소도시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연계하고 있는지의 사례와 함께 지역에서 한 달살기를 통해 경험했던 지역살이의 사례를 생동감 있게 전했다.

정석 교수는 특강에서 '일백달수'는 일년에 백만명이 수도권을 탈출하는 것이고 '지역민국'은 지역에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고 실제로 수도권을 탈출하는 청년들, 은퇴한 세대가 많이 있고 이는 실현 가능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화공연으로 직장인으로 이뤄진 어쿠스틱 밴드인 뮤직엔 라이프의 수준높은 포크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정석 교수의 특강 후 오송욱 박사(전주대학교)의 사회로 안수용 이사장과 정읍시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토크쇼가 진행되었다.

토크쇼에서 안수용 이사장은 "소다연강미- 작아도 강하고 아름다운 손을 잡는 도시들, 참 매력적인 제안이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사회, 인구감소를 넘어 지역소멸에 대한 신선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읍 역시 인근의 고창과 부안, 김제, 순창 등과 인접해 있는데, 과연 정읍도 소도시연합을 한다면 어떤 방식을 고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어 심정민 씨는 정석 교수의 제안 중 좋은 시장보다 좋은 시장이 중요하고 좋은 시장보다 좋은 시민이 더 중요하며, 좋은 시민은 어떤 시민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수군, 2023년 3분기 장수군 혁신군정상 시상

장수군은 4일 청원조화를 열고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3개 부서에 2023년 2분기 장수군 혁신군정상을 시상했다.

군은 민선 8기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조성을 위해 2023년 3분기부터 '혁신군정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이번 3분기에는 군정 현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창출한 3개 부서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산림공원과 공원레저팀, 우수상에는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과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이 선정됐다.

산림공원과 공원레저팀은 누리파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조성해, 지난 7~8월 누리파크에서 발물놀이장 및 어린이 놀장을 운영했다.

발물놀이장 운영을 통해 누리파크를 찾은 많은 관광객의 호평을 받았으며, 누리파크 관광객 3만 명을 달성하는 등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행정지원과 평생교육팀은 문화스쿨버스, 풀뿌리 교육지원



센터, 원거리 참여학생 이동수단 지원 등 교육분야 지원사업 전면 개편을 통해 문화 불평등, 교육인프라 불평등 교육정보소외를 완화하고 이동권을 개선한 공을 인정받았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전 직원 '청렴 다짐 릴레이' 시작

진안군은 모든 직원이 함께 청렴 의지를 다지는 '청렴 다짐 릴레이'를 시작했다.

청렴 다짐 릴레이는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이를 실천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진안군이 선정한 올해의 실천과제 중 하나다.

'청렴 다짐 릴레이'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전춘성 진안군수는 '청렴한 당신이 미래의 진안입니다'라고 적힌 다짐 문구와 함께 "청렴은 나 자신과 올바른 공직문화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기본 중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진안군 공직자 여러분께서 청렴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후 청렴 다짐 릴레이는 5급 간부공무원들에게로 이어진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직자 청렴 다짐 릴레이를 통해 우리



군 공직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청렴에 대해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산시의회, 민주평통 제21기 출범식 참석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4일 '민주평통화합지문회의 군산시협의회 제21기 출범식'에 참석했다.

군산 리츠포리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자문위원 및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구성현황 보고,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주평통화합지문회의 군산시협의회 간사인 군산시의회 윤세자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에서 김영일 의장은 "민주평통 군산시협의회 제21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그동안 오성선의 평화통일공원 건립과 구시청 광장의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등을 통해 협의회가 지역사회 내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데 노력하여 왔다"며 그간의 민주평통의 업적에 대해 감사함을 표사했다.

신임 위원들에게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민족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우리 시민들에게 올바른 대북관과 통일관을 심어주고 흠뻑하기 쉬운 안보관을 일깨워 주는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창경찰, 보이스포싱 예방 농협 직원에 감사장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가 최근 보이스포싱 피해를 예방한 농협 고창군지부 소속 문준호 계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4일 경찰서에 따르면 문 계장은 지난달 5일 10시 45분경 현금 1,450만원을 인출하기 위해 찾은 A씨가 대출을 문의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보이스포싱을 의심해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포싱 조직원이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보내주면 2,0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줄겠다"고 A씨의 휴대폰에 전송한 대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즉시 조치를 취했다.

이석현 서장은 "계심한 관심과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예방했다"며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금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보이스포싱 피해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장호 군산대 총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국립군산대 이장호 총장은 4일 환경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행정 실천을 위한 1회용품 제로(ZERO)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기 위해 환경부가 추진 중인 범국민적 친환경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실천 약속을 담은 게시물을 SNS에 게재한 뒤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이장호 총장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사용되는 일회용품이 너무 많다"라며 "대학 내에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는 등 지속 가능한 환경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안동교육지원청 이순호 교육장으로부터 추천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한 이장호 총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을 추천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고창경찰, 지역치안협 통한 범죄예방 대책 논의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최근 지역의 치안 문제와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를 열어 주민들의 안전과 품질 높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지역치안협의회에서는 자율방범대 및 범죄예방 관련 조례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지역의 치안 시설 개선에 대한 계획을 검토했다.

공공장소나 주거지역의 CCTV 설치 및 어두운 골목길의 조명 보강 등 다양한 치안 시설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필요한 곳에 치안 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이석현 서장은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논의한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삼계면, 임실군민의날 입장식 퍼포먼스 준비 한창

임실군 삼계면이 제1회 임실군민의 날 행사에서 특색 있고 특색있는 입장 행렬을 보여주기 위해 연습이 한창이다. 임실군민의 날을 맞아 바사골 삼계면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대표 선수단이 임실군민의 날과 임실N치즈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신타 사절단 10명과 박사들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 입장식 퍼포먼스는 '서로사랑 군민화합'을 이루는 절정의 장면을 연출하는 퍼포먼스로 선보인다. 사랑의 꽃 장미와 화합의 꽃 국화, 열정적인 울동은 군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열정적인 울동과 함께 흔들어 내는 방울 소리는 임실군민의 날을 축하하고, 임실 N 사랑 Dream! 치즈 N 건강 Dream!을 주제로 한 임실N 치즈축제를 세계민방에 알리라는 의미를 담았다.

삼계면의 차별화된 입장 행렬은 울동단 20명, 선수단 60명, 농악단 20명 총 100명으로 구성되며, 울동과 손에 든 꽃다발과 흔들어 내는 방울 소리는 이번 행사에 있어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임실=진홍영 기자